



5월 구역예배 순서지

 예담교회



구역원용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436장 · 나 이제 주님의 | 다같이

기도 | 구역원 중

성경말씀 | 고린도후서 4장 7-14절 | 다같이

“제목 : 보배를 담은 질그릇”

7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8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9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10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11우리는 살아 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12그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13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14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말씀살피기 | 다같이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것으로 잘 깨지고 부서지기 쉽고 값이 별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지면 버리고, 또 사고, 별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습니다(7절). 아주 값지고 귀한 것이요 천하에 둘도 없는 소중한 보배입니다.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망가지기 쉬우나 보배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의미있고 목적 있는 참으로 값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질문1)질그릇에 담긴 보배는 무엇입니까?

질문2)우리를 다시 살릴 분은 누구입니까?(14절)

말씀적용 | 다같이

1. 지금 걸 사람으로서의 나와 속 사람으로서의 나의 관심은 각각 무엇입니까?
2. 속사람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나눔 | 다같이

1. 한 달 감사제목 나누기
2. 중보기도 제목 나누기
3. 교회 일정 나누기

합심기도 | 다같이

마침 | 주기도문 | 다같이

(통일 493)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

주와 동행

이호운, 1967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후 5:17)

주 함께 살리라: 6.6.6.D.REF.

박태준, 1967

보통으로

1.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2.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 니 옛것은 지나고
3.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 고 옛것은 지나고
4. 주 따라 가는 길 험하고 멀 어 도 찬송을 부르며

새 사람으로 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이제는 값없 다 그 생명의 은혜와 강평화를 맛보 니
친구로 변한 다 새 생명의 은 자 영생을 누리 니
뒤 따라 가리 라 나 주를 모 시 고 영영 원히 살리 라

그 사랑 내게서 해 같이 빛난 다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 라 영생을 누리며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 다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 라

주 안에 살리 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 라